



골목따라 벽화따라! 천안 미나릿길 벽화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우리나라 벽화마을 어디까지 가봤을까? 통영 동피랑마을이나 수원 행궁동 벽화마을 등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 인터넷에서 한번만 검색해보면 사진들과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벽화마을이 충남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셨는지?

골목마다 이어진 추억의 시간여행! 최근 상영된 영화 '인터스텔라'의 워홀은 바로 '골목'이었다... 라는 감직한(?) 주장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곳! 바로 천안의 미나릿길 벽화마을이다.

미나리? 그렇다. 시원한 국물맛을 내는데 제격인 바로 그 미나리다. 이곳 천안 영성동 17, 18통 지역은 원래 실개천이 흐르고, 주변에 미나리가 많이 자라났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실개천이 복개되면서 미나리를 비롯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이 골목만 남게 되었다.

이 골목은 천안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인근 중앙시장이나 천일시장 등과 함께 중심상권이었지만 점차 낙후되어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옛 추억을 간직한 문화를 입혀보자는 주민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소규모 지역 공동체 방식으로 새롭게 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어둡고 낡은 골목은 웃음과 따뜻한 정이 오고가는 벽화길로 조성되었다.



〈동그라미 부분이 미나릿길 벽화마을이고 원성전 사이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음〉



〈마을입구에 붙은 안내도〉

이 벽화마을은 찾기가 그리 수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뒷길에 꺾말이 있긴 하지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이 조금씩 유명해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다보니 주민자치센터에는 '벽화마을 가는 길'을 묻는 민원(?)이 생겨났을 정도라고 한다.

먼저 벽화마을에 들어서면(미나릿길 11-2) 안내도가 보인다. 골목이 미로처럼

찾기 어렵지는 않지만 필자처럼 사진을 찍어놓고 골목을 걸으면서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듯하다. 참고로 이곳엔 유난히 소위 말하는 '점집'이 많다. OO보살집 간판이 많이 보인다 싶으면 잘 찾아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벽화마을은 0.8km 구간의 골목 106개 벽면에 220점의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가족이나 연인끼리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사진으로 추억을 담기 좋은 다양한 벽화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과거 이곳 마을 주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부터 옛 선조들의 풍속화,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특히나 벽화에 트릭아트를 접목시킨 입체그림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다.



〈트릭아트 체험〉

이처럼 이 마을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 충전과 도시 재생이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 원도심 재생이라는 커다란 고민거리를 해결시켜 줄 하나의 시범사업이기도 한 미나릿길 벽화마을! 천안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골목 변경전(좌), 변경 후(우) 모습



자료 :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제공

위 변화된 사진들을 보면 정말 골목이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자는 이 마을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마침 이 골목을 지나던 중 이곳에서 20년간 여인숙을 운영해온 웃음이 아주 매력적인 사장님과 스피드 일문일답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Q. 골목이 어때요?

A. 종지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는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당기니까~

Q.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세요?

A. 그럼요~ 다들 좋아해유~ 자식들도 손자손녀 데리고 놀러오른 재밌어하니까 사람 사는 거 같잖아유~

Q. 여인숙은 전보다 잘 되세요?

A. 음... 그건 좀 아녜디~ 요새 누가 여인숙을 찾나유~ 돈벌이는 비슷해유!

Q. 벽화는 계속 그대로 두나요? 아니면...

A. 매년마다 그림을 그리드만~ 학생들 와서 그림 더 이쁘지더라구~ 여기 사람들도 자치센터 직원들이랑 가끔 골목도 청소하고 하~ 깨끗해야 좋잖아유~

그렇다! 이 벽화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물론 마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상권이나 천안 지역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또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그리고 골목에서 파는 미나리 파전 등 먹거리 개발 등 과제들이 엄청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곳 벽화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여기를 거쳐 목천 독립기념관이나 병천 순대타운 등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근처 태조산 자락에 자리잡은 각원사(覺願寺)를 둘러본다는 것이다. 이 각원사에는 좌대 지름이 10m, 좌대와 불상 전체높이는 15m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남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아미타청동대좌불상이 있다.

물론 그것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다. 다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걸음걸이에 맞춰, 다만 한 발짝 정도만 앞서가면 된다고 말하고 싶다. 억지로 꺾어 맞춘 이야기 말고 그들의 삶이 제대로 녹아있는 그런 골목이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